

누가복음 19  
Tape #C2538  
By Chuck Smith

*Now Jesus has entered into Jericho (19:1).*

And as He is passing through the city,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which was the chief among the publicans (19:2),*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9:1).*

주께서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19:2).*

The city of Jericho was an oasis. It was a resort town; it was the Palm Springs, except even more lush. The winters can get quite cold in Jerusalem. They get even an occasional snow. But down in Jericho in the wintertime the weather is just really perfect. The days are usually clear. You get less than two inches of rain during the year. And yet, because it is about 1100 feet below sea level, there are all kinds of springs and little streams down there in Jericho because of your depth.

여리고 성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유흥지였고 푸른 풀이 더 많은것 외에는 팜 스프링과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예루살렘도 몹시 춥습니다.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도 여리고는 기후가 너무나 좋습니다. 낮에는 통상 맑습니다. 일년내 강우량은 2 인치 이하입니다. 그러나 바다 보다 1100 피트 낮은 지대에 있으므로 여러가지 샘들과 개울들이 깊이 빠진 여리고로 흘러 내립니다.

And there's just these artesian wells or springs and all of this fresh water. And with the warm temperatures which are usually in the wintertime into the eighties during the daytime, it just makes for lush growing and a year-round growing season. And there's just great citrus and all types of fruits that are grown there in the area around Jericho. So it became a retreat for the wealthy people. They would all have their winter houses down in Jericho. And Jericho was filled with publicans, that is the tax collectors, because they were the wealthy people, and Pharisees.

그곳에 지하로 깊이 판 우물들과 흘러 나오는 샘들이 있으며 다 신선한 물입니다. 따뜻한 온도로 겨울에도 낮에는 80도 가량 되며 푸른 풀이 자라도록하며 일년 내 자라는 계절입니다. 여리고 지방에서 훌륭한 감귤 종류의 온갖 과일이 재배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부유한 사람들의 휴양지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리고에 겨울 산장을

가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많은 세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nd so,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An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and he was the chief of the publicans, the tax collectors,"

*and he was rich. And he sought to see Jesus who he was (19:2-3);*

Now, the blind man, when they said, "It's Jesus of Nazareth," he knew who He was. This man didn't know who He was, but he was curious. There was a tremendous crowd of people moving along. "Who in the world are they thronging after? Who is He?"

*and he could not see, because he was so small (19:3).*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19:2-3);

사람들이 “예수 시라” 고 말할때 그 소경은 그가 누구인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줄 몰랐지만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단히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 가는건가? 그가 누구 일까?”

A short little fellow, could not see over the crowd, and he dared not to venture into the crowd because people knew who he was and they hated him. He was public enemy number one, he was the chief of the tax collectors. And to go in and try and work his way through the crowd to see Jesus, he had been beaten to death. He would have been elbowed, gouged, pinched, and they would have really gotten him if he dared get into the crowd. He knew better than getting into a crowd of people.

이 작은 사람은 군중때문에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군중속에 들어가는 모험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중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군중을 지나 예수를 보러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맞아서 죽었을것입니다. 사람들이 팔로치고 눈을 뽑고 꼬집었을 것이며 그가 감히 군중 속에 들어 갔더라면 그를 정말 죽였을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o he saw that Jesus was going down the street.

*He ran ahead of him,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and waited for Jesus to pass under (19:4).*

Just so he could see this Man. He didn't know who He was, but he just wanted to see Him. And to his amazement,

*As Jesus came to the tree, he looked up, and he saw him, and he said,  
Come down, Zacchaeus, hurry up; because today I must abide at your house  
(19:5).*

그래서 예수께서 거리로 내려 가시는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19:4).*

그가 이 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19:5).*

It's interesting that even though Zacchaeus did not know Jesus, Jesus knew Zacchaeus and called him by his name. John tells us that "Jesus did not need that any man should testify Him of man, because He knew man and He knew what was in man." He knew what was in the heart of this man. Now, there are many ways that Jesus could have gone to Jerusalem without going through Jericho. I think that He went through Jericho just because He knew there was this man there whose heart was yearning for God. I think He made a detour in order that He might meet Zacchaeus.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실수 있는 여러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둘러가셨다고 생각합니다.

*And so Zacchaeus made haste,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19:6).*

Probably because he knew that it would upset the Pharisees. Now at this point the door is closed on us. We are not taken into the feast. We are not brought into the conversation. But here, Jesus abiding at the house of Zacchaeus, began to talk to him, no doubt, about the kingdom of God. No doubt about life and the real values of life, probed his heart, his soul. Outside, where we must stand with the crowd, we hear only the murmuring of the Pharisees against Jesus for going into the house of a sinner. For they

*murmured against him, saying, He had gone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was a sinner (19:7).*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19:6).

아마 주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들것임을 아셨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문이 닫겼습니다. 우리는 잔치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떠 보았을것이 분명합니다. 밖에서 우리는 군중들과 함께 서있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중얼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들이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19:7).

Outside there was that mulling around of the crowd as they waited for Jesus to come back out. They probably heard an occasional roar of laughter come from within the house. You say, "Oh, you believe that Jesus laughed?" You bet I do! I think that He had a keen sense of humor. I do not picture Him as always very sober. I think it was a very tragic period of the church when somberness became equated with spirituality and it was a sign of unspirituality to smile.

밖에는 예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안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웃는 웃음소리를 가끔 들었을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예수께서 웃으셨다고 믿니?" 물론, 믿지. 나는 주께서 유머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근엄하기만 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믿습니다. 근엄한것은 영적이고 미소를 짓는것은 영적이 아니라는 교회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e ministers took on such a...well, they wore the black suits. And they took on that quality of tone in their voice and that very somber, serious, sober, "Go-o-od mor-n-ing." And you think, "Oh, what a spiritual man!" So sober, so serious. I think of Jesus as a regular fellow. I can see Him just laughing with the disciples, slapping them on the shoulder...and just a man's man. But yet, there were those periods of silence where they didn't hear the laughter outside, those times when Jesus was probing, talking, dealing with Zacchaeus.

그래서 그것을 받아드린 목사들이 까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도 음성을 근엄하고 진지하고 침울하게 조절 했습니다. "아...너...넹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오, 참으로 신령한 분이네!" 라고 합니다. 너무나 근엄하고 너무나 진지합니다. 나는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제자들 과 웃고 등을 치기도하고 그는 남자중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조사해보고 말해보면서 그를 다룰때 밖에서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침묵도 있었을것 입니다.

Now the doors are opening again and Zacchaeus is standing there before the Lord. He was a short little fellow, probably looking up at Him.

*Lord, a half of my riches I'm going to give to the poor; and if I've taken anything from a man falsely, I'm going to restore to him fourfold. And Jesus answering him,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inasmuch as he is become a son of Abraham (19:8-9).*

이제 문이 다시 열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으므로 주를 위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9:8-9).*

Now, there are two ways to look at that. The translation in our King James is: "This day is salvation come to this house, forasmuch as he also is a son of Abraham." And there could be a fine bit of satire and humor in that. Anytime you hear a Jew say, "I'm going to give away half of my riches," you know that salvation has come to his house. You know, one of these type of Jews that Zacchaeus was. But the other is probably the correct. "...inasmuch as he has become..." And either translation can be accepted. "...a son of Abraham." Paul tells us that it wasn't the physical descendants of Abraham that would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piritual descendants.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의 번역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이 "오늘날 내 재산의 반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아마 옳을 것입니다. "... 그가...이였으므로." 두 가지 번역을 다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 바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요 영적인 자녀가 받을 지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Abraham was not the father of the physical seed, but of the spiritual seed of those who would believe as their father Abraham; who believed God, became the father of the spiritual seed, those who would believe and trust in God. And so we ar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faith, Paul teaches us. So Jesus could be using that spiritual application now through the faith that is in this man. He is become, indeed, a son of Abraham; that is, a spiritual descendant. There were Jews who said to Jesus, "We are of

our father Abraham." Jesus said, "If you were of your father Abraham, then you would have known Me, because Abraham testified of Me and he saw Me." And they said, "You're not fifty years old. When did Abraham see You?"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씨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적인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아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터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또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And He said, "Before Abraham was, I Am." Then Jesus said, "But you're of the father, the devil, not the sons of Abraham." "We have Abraham for our father." And He said, "Don't say that. Don't you realize that God can raise up rocks as children of Abraham, if He wanted?" It's the spiritual seed, those who believe. Abraham was the father, so we have become children of Abraham through our faith, and heirs, then, of the promises of God that were given to Abraham. They are ours because we are the spiritual sons of Abraham, the man who believed God. And we are his first sons. Now, you can't carry that too far, as some people tragically do, and say, "Well, the church is Israel." No, the church is not Israel. And God is yet going to deal with the nation of Israel, as He has promised.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런후에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줄로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믿는 자들 곧 영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영적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맏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확장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그렇게 하며 말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다루실것입니다.

But Jesus then said to the crowd, those who were murmuring,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19:10).

Find fault! You were murmuring because I was a guest of a sinner. But that's who I came to seek. That's who I came to save.

*And as they heard these things, he added a parable, because they were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should immediately appear (19:11).*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중얼중얼하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10).*

잘못을 찾아라! 내가 죄인의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중얼거리는 구나. 그러나 나는 잃은 자를 찾기위하여 왔고 구원하기위하여 왔노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 이러라 (19:11).*

Now they had heard Zacchaeus saying, "All that I have, half of it I'm going to give to the poor." Now Jesus accepted that, didn't He? He said to the rich young ruler, "Sell everything that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But now with Zacchaeus saying, "A half that I have I give to the poor. And I restore fourfold anything that I have taken dishonestly." Jesus said,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o you see, it isn't a demand that I have to sell everything to follow Jesus, it's just that I can't let that be my go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Now Jesus, because they were getting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notice...they thought that the kingdom of God should immediately appear. He had just told them, "I'm going to despised, I'm going to be rejected, I'm going to be slain, I'm going to be spit upon," and the whole thing, and yet, they still thought the kingdom was going to immediately appear. And so He spoke a parable unto them to the intent that they would see that there will be a delay of time before the kingdom will be established.

그들은 삭개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고 말씀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시다시피 예수를 따르기위해 모든것을 팔아야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나의 신이 될수 없다는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와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줄로 생각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버림 받고 침 뱉음을 당고 죽음을 당하게 되리니” 그것이 전부일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시간의 지체가 있으리라는것을 그들이 보게 되기를 시도하여 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 went 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19:12).*

Now, it is interesting that Jericho was the city where Archilles had built his palace. And Archilles was the Roman procurator over that area. And Archilles, prior to this, had gone to Rome in order that he might be elevated to the title of king. Because he felt that procurator just wasn't a big enough title for him, and he was wanting the title of king. And that could only be bestowed by the Roman senate. And so Archilles had gone to Rome to receive the title of king, that he might come back and dwell in his palace and reign there in the area of Jericho.

여리고가 아킬레스의 궁을 지은 도시라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킬레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관 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이라는 명칭이 그에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왕의 칭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는 오직 로마 정부에서만 하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갔으며 그후에 돌아와 그의 궁전에 살면서 여리고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And when he went to Rome, he left his duties in the hands of some of his subordinates with whom he left the funds that they might run the affairs of state. With Archilles, however, there were other emissaries who went to Rome and spoke in the senate against him; and rather than receiving the title of king, the Roman senate took away his position even as the procurator of that area. So Archilles had sort of a bad experience, much as did Herod later, who went to Rome with the same desires and was actually banished to Spain...not Herod the Great, but one of his sons, Antipas.

그가 로마에 갔을때 그는 지역의 정치를 하도록 자금과 함께 자기의 부하들의 손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서 상원에서 아킬레스를 대적하여 말하러 간 다른 밀사들이 있었으며 로마 상원은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기는 커녕 그 지역의 행정 장관직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아주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후에 헤롯도 같은 욕망을 가지고 로마에 갔을때 그는 스페인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의 하나인 안티파스였습니다.

So, it could be that Jesus, in giving this parable, is touching on something that historically had not happened too long ago, and something that they had all known about in Archilles' leaving Jericho to go to Rome to get the title king.

"But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ent 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And he called his ten servants, and delivered to them ten pounds, and he said unto them, Occupy till I come (19:13).*

그것은 이 비유에서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일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사건인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로 떠나는 아킬레스에 관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나라로 간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9:13).*

Now, this is the word of Jesus to the waiting church, "Occupy till I come." We are not to sit back and say, "Well, the Lord is coming; there's no sense of finishing my education. Well, the Lord is coming; there's no sense of not entering into this business venture...or, let's just wait, because the Lord is coming." We are not to plan our lives, "Well, let's go out and charge everything, because the Lord's coming, and we won't have to pay for it." We are not to plan our lives predicated upon the Lord's coming in a particular span of time.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기다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와, 주님이 돌아 오신다. 내가 학업을 끝낼 이유가 없어. 주님이 돌아 오시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어, 혹은 주님이 돌아 오실테니까, 그냥 기다리자” 라고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 나가자 그리고 전부 외상으로 물건을 사자. 주님이 돌아 오시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느 특별한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실것을 기초로 하여 계획해서는 안됩니다.

But we are to occupy until He comes. Yet, anticipating Him to come at any moment, never getting so involved that I'm not ready to drop things in a moment's notice. Because that I may have to do. I am to use the time that I have wisely in my serving the Lord. I am to occupy until He comes, but never to just sit down and say, "Okay, Lord, we're just going to wait now here until you come. Oh, praise the Lord." And just have a glory hallelujah meeting as we're waiting for the Lord to just come and rapture us. Never! We're to occupy, we're to keep busy until He comes.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돌아 오실때 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을 예상하면서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여 짧은 순간에 알려주실때 그 일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때 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말하되 “오케이, 주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 될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모임만 가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때까지 분주하게 일해야 합니다.

And so he delivered the ten pounds, and said, "Now occupy till I come."

*But his citizens hated him [as did those of Archilles], and they sent a message after him, saying, We will not have this man to reign over us (19:14).*

And that's exactly what they had sent to the Roman senate concerning Archilles, "We will not have him reign over us."

그가 십 파운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 올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9:14).*

그것이 바로 아킬레스에 관하여 로마 상원에게 그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합니다."

*And so it came to pass, that when he was returned, having received the kingdom [which Archilles did not do], then he commanded these servants to be called to him, whom he had given the money, that he might know how much every man had gained by trading. Then came the first, and he said, Lord, your pound has gained ten pounds. And he said unto him, Well, thou good servant: because thou has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you will now have authority over ten cities. And the second came, saying, Lord, your pound has gained five pounds. And he said likewise to him, Be thou also over five cities. And another came, saying, Lord, behold, here is your pound, which I have kept laid up in a napkin: for I feared thee, because I know that you're an austere man: you take that which you did not lay down, you reap that which you did not sow. And he said unto him, Out of your own mouth will I judge you, you wicked servant. You knew that I was an austere man, taking up that which I did not lay down, and reaping that which I did not sow: Therefore you should have given the money to the bank, that at my coming I might have required at least my own with interest? And he said unto them that stood by, Take from him the pound, and give it to him that hath ten pounds. (And they said unto him, But, Lord, he has ten pounds.) For I say unto you, That unto every one which hath shall be given; and from him that hath not, even that which he has shall be taken away from him. But those mine enemies, which would not have that I should reign over them, bring them hither, and slay them before me (19:15-27).*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딸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 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9:15-27).

Those people that say, "We'll not have Christ to rule over us," they'll be brought before judgment and destroyed. However, those servants to whom He has entrusted His goods will b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did, their stewardship of those goods with which they were entrusted. Now, it is interesting here that their reward is in their place of rulership in the kingdom. When the Lord comes to establish His kingdom upon the earth, the Bible teaches that we will reign with Him over the earth. To the church of Thyatira,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kingdom. And they shall rule over the earth with a rod of iron" (Revelation 2:26-27).

그 사람들이 한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그들은 심판대에 끌려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겼던 재산을 맡았던 자들은 그들이 맡은 재산의 청지기로서의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것은 그들의 상급은 왕국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앉는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 하실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 2:26-27).

Actually,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irst chapter, "Unto Him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who has redeemed us, and we shall reign as a kingdom of priests with Him upon the earth." And then in Revelation, the fifth chapter, "Thou art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unloose the seals thereof, for Thou has redeemed us by Thy blood out of every nation, kindred, tribe, tongue and people and hath made us unto our God kings and priests; and we shall reign with Thee upon the earth." So the church reigning with the Lord upon the earth. Now, reigning over five cities, reigning over ten cities, reigning over two cities...according to our faithfulness with what God has

entrusted us now, as I am a steward of God's things. I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ake to get Hawaii, but I'm working towards it.

실제로, 요한계시록 일 장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오장에 “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 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것 입니다. 다섯 고을을 다스리거나 열 고을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두 고을을 다스리는것은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나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하와이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ow when he had thus spoken, he went before, ascending up to Jerusalem (19:28).*

You see, He's on His way, He's moving towards Jerusalem, and this parable was on their way up. Because they felt the kingdom was going to come immediately. "No, it's going to be like a king who went away to a far country to receive the kingdom, and then he returns later on and requires of his servants that which they did with his goods. And those who sent the message and say, 'Hey, we don't want him to reign over us,' they are to be cut off."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9:28).*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올라가는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국이 당장에 이루어 질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나라로 갈때에 그의 재산을 주어 종들로 관리하게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어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는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것을 원치 않네’ 라고 했을때 그가 저들을 죽였느니라.”

Now they are arriving near Jerusalem. "When He had thus spoken, He went before ascending up to Jerusalem." From Jericho to Jerusalem you're going from 1200 feet below sea level, you're ascending up to about 2700 above sea level, so it's a good climb.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해저 1,200 피트 에서 해상 2,700 피트를 올라 갑니다. 등산하기에 적합 합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he was come near to Bethpage and to Bethany (19:29),*

These are the little villages that are on the wilderness side of the Mount of Olives, away from Jerusalem.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19:29),

이 동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며 감람산의 광야 쪽에 있습니다.

*and the mount called the mount of Olives, he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t the which when you enter you're going to find a colt that is tied, whereon a man has never sat: loose him, and bring him. And if any man asks you, Why are you loosing him? you shall just say unto him, Because the Lord needs him. And so they that were sent went their way, and they found even as he had said unto them. And as they were loosing the colt, the owners said un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And they said, The Lord needs him. And so they brought him to Jesus: and they cast their garments upon the colt, and they set Jesus thereon. And as he went, they spread their clothes in the way. And when he was come near, even now at the descent of the mount of Olives (19:29-37),*

That is, He's come over the Mount of Olives and started now to descend on the other side.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대로 만난지라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터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19:29-37),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감람산 까지 오셨다가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the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of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saying, Blessed be the king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And some of the Pharisees from among the multitude said unto him, Master, you better rebuke your disciples.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tell you that, if these should hold their peace, the stones would immediately cry out. And when he was become near, he beheld the city, and he wept over it, saying, If thou hast known,*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 unto your peace! but now they are hid from your eyes (19:37-42).*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19:37-42).

The triumphant entry of Jesus, riding on a colt, takes us back to the prophecy of Zechariah, chapter 9. "Rejoice greatly, O daughters of Jerusalem: shout for joy! For thy king cometh unto thee. But He is lowly; He is sitting on a colt, the foal of an ass." And so, here He comes riding, the King. Notice, on a colt that had never been broken, showing again His mastery over nature. No man had ever sat on this little colt. Yet, He sat on it.

나귀를 타신 예수의 승리자로서의 입성은 스가랴 9장의 예언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여기 나귀를 탄 왕이 오십니다. 주목 할것은 한번도 타 보지 않은 나귀는 본능적으로 다시 그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셨습니다.

As He is riding in, the disciples began to cry out Psalm 118, which is a Messianic Psalm. If you look at the Psalm 118, you find that the prophecy concerning Jesus there in verse 22,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fused is becom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ous in our eyes." When Solomon built the temple, the story is told how that all of the stones were quarried away from the temple site.

주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때 제자들은 메시아 시편인 118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예수에 관한 예언이 22절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때 모든 돌을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채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ctually, on up the hill on Mount Moriah above the site of the temple you can still see the stone quarry today. In fact, you can go into what they call the Solomon's Quarries and see where many of the stones were taken for the temple building and all out of this huge cavern that comes under Jerusalem. And, of course, the quarried area that ultimately made a canyon between the wall of Jerusalem and the top of Mount Moriah, which was later called Calvary because of the quarrying of the stone the caves left as they pulled the stones out. It left the impression of a skull in the side of the mountain.

실제로 성전 부지의 윗쪽 모리야산의 위에 채석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실제로 들어 갈수 있으며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돌을 예루살렘 밑으로 오는 큰 동굴에서 캐어 왔습니다. 물론 채석을 했던곳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리야 산꼭대기 사이에 있는 큰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후에 그곳을 갈보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을 캐어낼때 채석으로 인하여 동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 옆에 해골의 인상을 남겨 놓았습니다.

And so they named the skull Golgotha, or Calvary. And so, the story goes that as they quarried the stones, each of them were marked and sent to the temple site where they were placed in place without the use of mortar. For there was to be no sound of a trowel or a tool, but everything was just there at the site itself, no chipping of the blocks there.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채석함에 따라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리에 맞도록 각 돌에 표시를 하여 성전에 보냈습니다. 흙 삽의 소리나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모든것이 그 현장에 있었으며 돌을 다듬는일도 없었습니다.

Everything was all cut to size according to the patterns, and numbered and labeled and then sent; and the builders just put the wall on up. And, according to the story, there came to the builders a stone which they did not recognize. They did not understand its place in the building. And so, according to the story, the stone was just set aside as a mistake at the quarry. And in the years that it took to build the temple, ultimately they came to the completion and the time for the dedication.

모든 돌을 모형에 따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 번호를 매기고 딱지를 부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는 그냥 놓아서 벽을 쌓아 올라 갑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건축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돌을 보내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느곳에 놓아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석장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쳐 놓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 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을 끝내고 헌당을 할 시기가 가까워왔습니다.

But they were missing one stone, the chief cornerstone of the building. And so, the builders sent the message to the quarries, "We're ready to dedicate but we're missing the chief cornerstone. You better send it." And they said, "We've already sent it." They said, "You can't. We don't have it." "Well, here's our records. Look, it's been sent. We've already sent it." And so finally, some fellow found this stone.

그러나 돌이 하나 모자랐고, 바로 그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채석장에 메시지를 보내어 "우리가 헌당식을 할 터인데 모퉁이 돌이 없노라. 빨리 보내 주기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벌써 보냈노라" 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우리에게 그 돌이 없노라" 고 했더니 "자, 우리의 기록이 여기 있네. 보게, 벌써 보냈다고 적혀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 돌을 발견 했습니다.

Now the bushes had overgrown and they pulled it out, the stone that had been set aside by the builders. And sure enough, it was the chief cornerstone. And so they put this thing in place and had their dedication. That's the story, whether or not it is authentic I don't know. But, here is a reference: "The stone which was set of not by the builders,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And Jesus, or course, is that stone.

이제 숲이 우거진곳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꺼집어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놓고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것이며 예수는 물론 그 돌이십니다.

The builders of that whole Judaic religious system set Him aside. But yet, as Jesus sai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e kingdom of God is to be built is the stone that was set aside by the religious leaders and of the Judaic religious system. So, it's definitely a prophecy of Jesus Christ. Peter makes reference to it and the best commentary you can get on the Old Testament is the New Testament, you know that.

모든 유대 종교제도의 건축자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모퉁이 돌은 유대 종교체제의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진 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신약 성경입니다.

Now, going on.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Psalm 118:24). What day? The day that God establishes the King, and then the cry, "Hosanna! I beseech Thee, O Lord: O Lord, I beseech Thee, send now prosperit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We have blessed you out of the house of the Lord" (Psalm 118:25-26). This is the Psalm that the disciples were crying,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ecause the Pharisees knew that that was a Messianic Psalm, they began to rebuke the disciples, or began to tell Jesus, "You better rebuke them." And Jesus said, "Look, I'll tell you something; if they would hold their peace, these stones would immediately begin to cry ou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계속해서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 리로다” (시 118:24).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외쳤던날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 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 118: 25-26). 이것은 제자들이 외쳤던 것으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메시야에 관한 시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했고 예수께 “저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당장 소리 지르기 시작하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So Jesus, as He looked at Jerusalem, He was coming dow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to cross the Kidron Valley, straight across on the same level, Mount Moriah, the temple mount on the opposite side the city of Jerusalem; He began to weep. And He said, "If you had only known,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day that the Lord had made, the day when they should be rejoicing and be glad in it. "At least in this thy day, if you only knew the things that belong to your peace. If you only knew that God was establishing peace with man. If you only knew what God would do for you if you'd just surrender your lives to Him...but they are hid from your eyes." And He is weeping first at their blindness, but then at the result of that blindness, the tragedy that would befall them.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감람산을 내려 오실때 기드론 계곡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고지이며 예루살렘시의 반대편에 있는 모리아 산을 쳐다 보셨습니다. 그는 우시기를 시작하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날은 주의 정하신 날로 즐거워 하고 기뻐할 날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만일 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이룩하시려는것을 알았다면. 만일 네가 너의 삶을 그에게 맡겼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는 그들이 보지 못하므로 우시며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For the days shall come upon you, your enemies will cast a trench about you, they will compass thee round, and keep thee in on every side (19:43),*

As Jesus is describing now the siege by the Roman legion under Titus, who in less than forty years would destroy Jerusalem and kill over one million people in the process. And so Jesus saw the devastation and the desolation, and He said,

*They shall lay thee even with the ground (19:44),*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19:43),*

지금 예수께서는 40년 이내에 디도 장군 수하에 있는 로마군의 한 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도시를 휩싸하며 일 백만명 이상을 죽일것을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황폐함과 폐허가 되는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시기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떼어치며 (19:44),*

This glorious beautiful temple that Herod had built is going to be leveled, not one stone will be left standing upon the other. These tremendous monuments in

Jerusalem all to be leveled. And Jesus, looking at this magnificent city, weeping because it's going to be destroyed,

*and the children within thee will be destroyed; they will not leave in thee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19:44).*

Because you were blinded to the work of God.

헤롯이 지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엄청난 기념비들이 다 땅에 쓰러질 것이므로 예수께서 이 장엄한 도시가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시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떼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19:44).*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at God had planned, the redemption of Israel. This is the day for the unveiling of the Messiah to the people. Prior to this day, Jesus would not allow any public acclamation of Himself as Messiah. He would reveal it to individuals on an individual basis, but often He'd say, "Don't tell anybody. Go your way. Tell no man." But this day He is encouraging the people's demonstration. He's getting that little colt in order that He might fulfill the prophecy of Zecharia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e day in history when the Messiah would come.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 하셨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는 주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개인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주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작은 나귀를 구하십니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It is, to me, very significant that this day took place 173,880 days after the commandment by Artaxerxes in March 14, 445 B.C.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Which, according to Daniel the prophet, that from the time the commandment goes forth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under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ince will be seven sevens and sixty-two sevens, or 483 years, or 173,880 days in the Babylonian calendar. And exactly to the day, April 6, 32 A.D.,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But they didn't rejoice. Instead, they rejected Him. And

knowing that He was to be despised and rejected, knowing that He was to be crucified, He wept as He looked at the city, because of the blindness and the resulted devastation that would result from the blindness.

이 날은 아닥사다스 왕이 주전 445년 3월 14일 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며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린후 173,880 일이 지난 후에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니엘 선지자 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때 부터 메시야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 혹은 바빌론 달력에 의해 483년 또는 173,880 일 후에 메시야가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날, 주후 32년 4월 6일이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즐거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멸시 받고 버림을 당할것도 아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지 못함 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And then he went into the temple, and he began to cast them out that sold, and those that bought; saying unto them, It is written, My house is the house of prayer; but you've made it a den of thieves (19:45-46).*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19:45-46).

I believe that if Jesus came today to His church that He would be doing a lot of cleaning up. I think that He would take these fraudulent computerized letters that are being mailed out by these T.V. evangelists and healers and rip them up.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in a lot of the mail that I receive, invariably those letters that come from "Faith Mission," the "Faith Broadcast," or the "Faith...wherever." They put the name *faith* in it. They are usually appeals for money. It causes me to wonder, where is their faith? Is it in man or is it in God? And these men who are willing through their great faith to bring you God's power and God's working, how is it that they can't have enough faith to maintain their fleet of jets in the Lord, but have to rely upon their mailing lists and their gimmicks?

만일 예수께서 오늘 그의 교회에 오신다면 청소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텔레비죤 전도자들이나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보내는 컴퓨터로 쓴 거짓된 편지들을 취하셔서 갈가갈기 찢으실것입니다. 내가 받는 많은 우편물은 변함없이 “믿음 선교” “믿음 방송” 혹은 “믿음...” 에서 오는 편지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믿음 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는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들의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안에서 그들의 사역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믿음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주소록 이나 그들의 간계만 의지하는고?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He said, "but you've made it a den of thieves." I thank the Lord that I'm not as other men. You see, it's hard to be in the right. No, it's sad and it's tragic, the things that have been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things that are BEING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whole fundraising gimmickry within the church, the schemes and the professionalism that has been brought in, it's tragic; it's sad. Let's just pray a moment.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건 슬픈 일이며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금운동의 속임수, 전문적 방법과 계획을 끌어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비극이며 슬픈 일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Father, we pray that You keep us from the trap of over-extending for our own ambition's sake and thus creating financial pressures, as we're trying to keep alive programs that were not given by You, but were only designed to fulfill some ambition or need that we have. Father, we wish to thank You for the way that You have abundantly provided for the needs here at Calvary Chapel.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given us far more, a surplus. That through this surplus we can broadcast Thy Word around the world, Lord. And yet, just depend upon You and never have to ask, Lord. How we thank You for this, Father! For we recognize it, Lord, as Your work. You've done it. And we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provided abundantly so that we've not been tempted to stoop to gimmicks or some other method of raising funds.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너무 확대시키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려고 지나친 경제적인 부담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갈보리채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도록 주신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세계에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지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당신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주께서 행하신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으로 우리가 속임수를 찾거나 모금하는 방법에 유혹되지 않게하셔서 감사합니다.

God, I pray for those that have been caught in that trap. I ask, God, that You will convict them of the distortions and fraud and lies. And may they see so, God, their fraudulent ways. And may they come to a real trust in You and cut back, Lord, if necessary on those ambitious programs that cannot bring glory to You. In Jesus' name, Father. Amen.

하나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주께서 그들을 비뚤어지고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하는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사기행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야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끊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Jesus taught daily in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and the chief of the people sought to destroy him, but they could not find what they might do: for all the people were very attentive to hear him (19:47-48).*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19:47-48).*

So Jesus was receiving the popular ear of the people at this point. They were attentive to hear Him. However, the leaders had conspired and determined at this point that He must be destroyed. And so, we see now that movement towards the plotting, the subterfuge that will lead to the betrayal and the arrest and the crucifixion. But the next couple of chapters, we get into very interesting aspects as we get this Olivet discourse, chapter 21, as Jesus deals with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and of His return in glory to establish to His kingdom. So next week, chapters 20 and 21.

이 시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들은 주위하여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시점에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제 추세는 배반과 체포와 십자가 형으로 이끌어갈 음모와 구실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두 장에서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을 공부할때 재미있는 면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과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영광중에 다시 오시는 그의 재림을 다룹니다.

You know, at the board meeting, it is great that the first thing we usually do after the minutes is we have a Bible reading and prayer and then the minutes. And then the treasurer's report. And then we have a praise and worship time, as we just praise the Lord for the marvelous way that He has provided for the needs here at Calvary Chapel. More than what we need, so that we are able to expand the ministry and are constantly looking for just new ways to extend and to expand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that He has given to us here.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난후에 의사록을 읽고 그후에 재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갈보리채플에 필요한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 이상으로 주신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확장하고 넓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수 있도록 하시는것입니다.

And so as the result of the prayers, the establishment of The Word For Today broadcast, and we are presently negotiating time on the radio in Monte Carlo that has a million watts of power that covers all of Europe and North Africa. We are planning to go on the Far Eastern Broadcasting Corporation that covers all of the area of the Philippines on into large areas of China and into India. And also into a radio station in South America that covers all of the South American continent. And we are just continuing to expand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just the teaching of the Word of God to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at that which God has used to bless us here can also become a blessing to people around the country.

기도의 결과로 “오늘을 위한 말씀 (The Word For Today)” 방송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전지역과 북 아프리카를 다 덮을수 있는 100 만 와트의 용량을 가진 몬테칼로에 있는 라디오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곳과 중국과 인도를 덮는 극동방송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남미의 전 지역을 덮는 남 아메리카에 있는 라디오에도 나갈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위한것입니다.

And it is thrilling to be able to go into these various cities and to meet thousands of people whose lives are being blessed, strengthened, and are growing through the study of the Word of God through The Word For Today radio broadcast, half hour daily,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now, moving out to powerful stations that will cover the world, actually. So, it's a thrill that God has provided that we can do this. And it is all generated just right here, the surplus funds that the Lord brings in to expand His work this way. And so we have a neat praise time every month at the board meeting, as we just praise the Lord that He has so abundantly provided. Just like He said, He would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And that's exactly what He's doing. And we just praise Him for it.

미국 전역에 하루에 30분씩 “오늘의 말씀 (The Word For Today)” 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들의 삶이 축복을 받고 강건해지며 자라는 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만날수 있게되니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세계를 덮을수 있는 강력한 방송국으로 옮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일을 할수있도록 공급하신것으로 인해 전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하시기 위하여 잉여 자금을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의 위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주신것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찬양할 뿐입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His hand upon your life this week. May your life in Christ be enriched. May you grow in your walk and fellowship with Him. May you enter into that fullness of the walk in the Spirit. In Jesus' name.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축복하시고 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 바랍니다. 행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 충만한데까지 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